

# 大學의 學術情報媒體와 그 評價體制

車 載 浩

(서울大 心理學科)

이 글에서는 '學術情報'를 각종 학술논문으로 국한시켜서 이런 논문을 실는 매체가 대학내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논문들이 어떤 평가체제를 거쳐 발표되고 있으며, 혹 그런 평가체제나 학술논문 발표체제에 개선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① 우리나라의 몇 개 대학에서의 學術誌 발간 상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② 논문의 평가체제를 살펴본 후, 끝으로 ③ 외국의 학술지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 1. 大學內의 學術誌 發刊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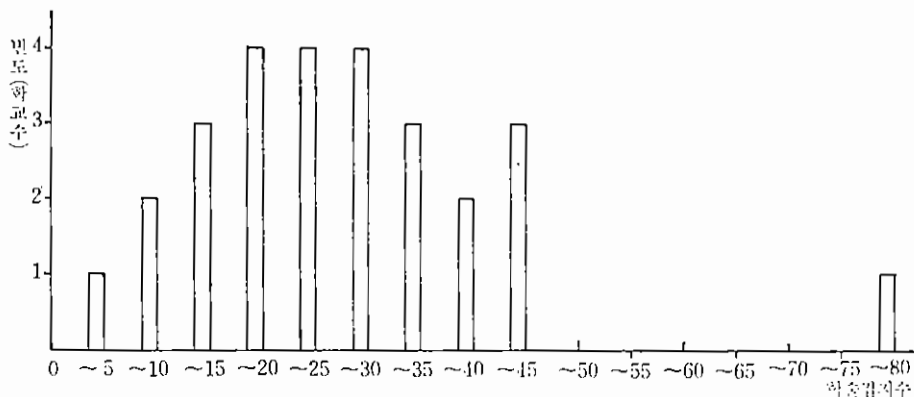
학술지 발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것은 없으나 여기서 제시하려고 하는 자료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입수된 대학별 학술지들의 목록을 토대로 한 것이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학부 학생들이 발간하는 '학보' 류의 학술지에 교수의 글이 학생의 논문과 함께 실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 수준에 따른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성 학자들의 학술지들도 전공에 따른 분화가 생기게 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 연구 발표매체가 되는 학술지는 대학 대학(교) 발행지, 單科대학 발행지, 학회 또는 연구회 발행지, 부설 연구소 발행지, 학과 발행지 그

리고 '기타' 종류의 학술지로 대별된다. '기타' 부류에 속하는 것은 호국단에서 내는 것, 박물관이나 병원에서 내는 것, 방송국에서 내는 것, 부설 훈련원이나 교육원에서 내는 것, 장학회에서 내는 것 등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된 27개 종합대학(2개의 특수대학이 포함됨)의 경우를 <표 1>을 통해서 보면 부설 연구소 간행의 학술지가 가장 많고(335종으로 전체의 45.6%), 그 다음으로는 단과대학 발행의 학술지가 많았다(172종으로 전체의 23.4%).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학회 또는 연구회에서 내는 것인데(79종으로 전체의 10.7%) 이 속에는 전국적인 성격의 학회도 몇몇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개는 특정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정된 성격을 띤 학회나 연구회들이다. 학과에서 내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65종으로 전체의 8.8%) '학회' 발행 학술지들이 실질적으로 학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학과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140여 종으로 전체의 약 19.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27개 종합대학 및 특수대학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들의 발행처별 분류

대학교	단과대학	학회	부설 연구소	학과	기타	계
53 (7.2)	172 (23.4)	79 (10.7)	335 (45.6)	65 (8.8)	31 (4.2)	735 (100%)



〈그림 1〉 27개 종합대학 및 특수대학이 발간하는 학술 잡지수로 본 학교의 분포

학술지의 연간 발행 빈도는 年刊이 가장 흔하고 季刊은 드물다. 서울대에서 나오는 것 중 조사된 79종의 학술지 중에서 季刊으로 나오는 것은 8종, 즉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半年期로 나오는 것은 14종으로 18% 정도이다. 연세대의 경우 42종의 조사된 간행물 중 季刊으로 나오는 것은 단 2건으로 5% 미만이다. 충북大(19종)나 계명大(33종)에서 나오는 것 중에 季刊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를 보아 규모가 크고 학술 활동 수준이 높은 대학에서는 학술 간행물의 약 5~10%가 季刊으로, 16~18%가 半年期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대학이나 규모가 보다 작은 대학의 경우에는 발행 빈도는 훨씬 떨어져서 季刊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半年期의 간행물도 찾기 힘들다.

학교별로 간행물 수를 보면, 서울대가 79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앙대가 45종으로 다음으로 많으며, 연세대와 동국대가 각각 42종으로 세번째로 많은 학술지를 내고 있었다.<sup>1)</sup> 네번째로 많이 발견된 학교는 경북대로 40종을 헤아렸고, 다섯번째로 많이 내는 학교로는 부산대가 떠올랐는데 35종이 발견되었다. 여섯번째는 고려대와 전남대로서 각각 34종을 보였다. 조사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수를 내고 있는 학교는

가톨릭大(3종)와 공주師大(10종)였다. 그런데 이 두 학교만이 조사된 학교들 중에서 유독 종합대학이 아니었다.

이들 조사된 27개 대학에서 발견되는 학술지의 수로 본 학교의 분포가 〈그림 1〉에 나와 있다. 약 80종을 내고 있는 서울대를 빼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규모가 큰 종합대학들은 평균적으로 25종의 학술지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는 이 평균의 약 3배를 내고 있고 두번째로 많이 내는 학교(이 자료에서는 중앙大)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의 학술지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이 차이는 자료의 출처가 서울대 도서관에 보내진 학술지들의 접수 기록을 토대로 했다는 사실 때문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도서관은 서울대내에서 출간된 학술지들을 더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3개의 전문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바, 3종 이상의 학술지를 내고 있는 학교는 불과 2~3개교였고 나머지는 대체로 교당 1종의 학술지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 사실은 이들 103개교가 내는 학술지의 총수가 108종이라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앞서 본 잘 알려진 27개교가 간행하는 735종

1)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는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된 수치는 조사에서 드러난 수이며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 누락은 주로 학과에서 나오는 규모가 작은 학술지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제시된 숫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접수한 학술지의 목록을 토대로 한 것이다.

과 103개의 전문대학(신학대학 등 포함)이 발간하는 108종을 합치면 모두 840여 종의 학술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있을 것을 생각하던 이보다 훨씬 많은 가지수의 학술지가 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총수(840여 종)의 약 42%를 규모가 크고 연구활동 수준이 높은 8개 대학이 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면모를 제목을 통해 보는 것도 학술지의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로 79종을 내고 있는 서울대를 보면 좋을 것이나 목록이 길어 지루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42종의 간행물이 확인된 연세대를 보기로 들어 보겠다. 이 학교에서 나오는 학술지들 일부의 제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논총」(학회), 「경상논총」(대학원), 「産業과 經營」(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商經論叢」(단대), 「행정춘추」(행정대학원), 「延世行政論叢」(대학원), 「社會科學論叢」(연구소), 「무역논문집」, 「연세 사회학」(학과),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연구소), 「법률연구」(연구소), 「延世法學」(학회), 「원우논문집」(대학원 원우회), 「延世論叢」(대학원), 「국어교육 논총」(학과), 「말」(한국어학당), 「연세 어문학」(학과), 「人文科學」(연구소), 「공학회보」(단대), 「자연과학연구소 연보」, 「학술논문집」(자연과학연구소), 「연세 수학」(학과), 「전자공학」(학과), 「연세 생화학」(학과), 「和自論叢」, 「東方學誌」(국학연구원), 「學林」(사학연구회), 「연세 영문학·영어영문학 연구」(학과), 「프랑스語文學」(학과), 「연세 독문학」(학과), 「중어중문학」(학회), 「간호학 논문집」(연구소), 「婦學」(단대), 「神學論壇」(신학대), 「연세 교육과학」(교육대학원), 「연세치치논문집」(연구소), 「작곡연세」(학과), 「도서관 학회지」(학과), 「도예연구」(연구소), 「방송대학」(교대 방송국), 「연세」

이와 같은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가지수가 많다는 것과 같은 분야에 중첩되는 간행물이 연구소, 학과 그리고 단대에 의해서 각각 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잡지 종류가 많은 서울대의 경우는 이런 중첩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적어도 한 분야에 2~3개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法學

분야에는 「法學」(연구소), 「서울대학교 法學判例回顧」(연구소), 「韓獨法學」(학회), 行政學 분야에서는 「發展政策研究」(학과)와 「行政論叢」(대학원), 그리고 經營學 분야에는 「經營論集」(연구소), 「마케팅연구」(학회), 「經營事例研究」(연구소), 「經營評論」(학생회), 「경영학연구」(학회); 국문학 분야에는 「국어국문학」(학회), 「冠嶽語文研究」(학회), 「論文集」(연구회), 「國語國文學論文集」(학과), 「先淸語文」(학회), 國史 분야에는 「奎章閣」, 「歷史教育」(연구회), 「韓國史論」(학과), 「韓國文化」(연구소), 그리고 「人文論叢」(단대)이 있다. 藥學 분야에는 「藥苑」(학생회), 「藥劑學會誌」(학회), 「藥學論文集」, 「연구소보」(연구소), 「生藥研究所業叢集」이 있고, 社會學 분야에는 「人口 및 發展問題 研究所 불렛틴」(연구소), 「韓國社會學研究」(연구회), 「社會科學과 政策」(연구소), 「새마을運動 綜合研究」(연구소)가 있다. 地理學 분야에는 「地理學과 地理教育」(학과)과 「地理學論叢」(학과)이 눈에 띄고 環境學쪽에는 「環境論叢」(학과)과 「環境研究」(학과)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人文科學系나 社會科學系에 비하면 自然科學系에서는 학술지의 중복물은 낮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研究論文集」(연구소), 「自然科學大學論文集」(단대), 「年報」(연구소), 그리고 「기초과학연구논총」(연구소)이 있을 뿐으로 학과 간행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사범대학에 속해 있는 자연과학 분야의 학과들 중 몇은 자체의 학술지를 내고 있다(예: 「한국지구과학회지」, 「과학교육연구논총」).

학과 수준에서 내고 있는 간행물도 상당한 수에 달한다. 앞에서 이런 종류의 간행물이 종합대학들(예의 27개교)의 경우 총간행물(학술지)의 약 19%를 차지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의 경우 특수 대학원까지 포함해서(서울대 대학원과 의예과와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모두 105개의 학과가 있는데 필자의 자료에 보면 약 25개의 간행물이 학과의 간행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숫자 속에는 학과 간행물이라고 분명히 못박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인 학회를 위한 간행물이 아니고 학과에서 운영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 연구소(흔

히 ‘연구회’ 등의 명칭을 내걸고 있다)에서 내는 학술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단과대학으로서 학과가 2개 이하인 대학에서 간행물을 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학과들의 약  $\frac{1}{4}$ 이 학술지를 내고 있는 셈이 된다. 물론 이들 學科에서 내는 학술지는 단과대학의 학술지나 종합대학의 학술지와 중첩되고 또 비교적 종합적인 성격을 띤 연구소의 간행물과 중첩된다. 그 밖에 각 분야의 학회의 간행물과 중첩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체로 학술지의 중첩은 ① 학과들간에 일어나는 것 (사범대의 학과와 인문대 또는 자연대의 동계 학과간의 중첩), ② 학과와 전국 범위의 학회간의 중첩, ③ 학과와 연구소 내지 단대간의 중첩(연구소가 몇 개 학과의 분야를 포함하는 성격을 띤 것일 때 학과에서 내는 간행물은 연구소의 간행물과 중첩될 수 밖에 없고 단대에서 내는 간행물도 학과의 간행물과 같은 관계에 있다), ④ 전국 규모의 학회지와 단대 또는 연구소 간행물간의 중첩(한 분야의 학회와 그 분야를 포함하는 단대 또는 단대 부설 연구소 간행물간의 중첩), 그리고 ⑤ 단대지와 그 단대 부설 연구소의 간행물간의 중첩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학술지 중첩의 주범은 학과에서 내는 학술지라는 것이다. 또한 학문 분야가 단대지와 연구소(몇 개 분야를 포괄하는) 간행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단대의 간행물과 그런 연구소의 간행물도 또한 중첩의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중첩의 규모를 전국의 모든 대학에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대학의 경우 내용의 중첩은 학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나 단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이 1 내지 2종의 학술지를 내고 있으므로 중첩은 대학들이 내는 종합적인 성격을 띤 대학 간행물에서 생긴다. 전문화된 학술지를 낼 수 없으므로 각 학교가 비슷한 성격의 종합적인 학술지를 뽀뽀해서 중첩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에서 국내 여러 대학에서 나오는 학술지

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된 840여 종의 학술지 중 약 40%를 규모가 큰 8개 대학이 발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서울대는 거의 전체 간행물의 약 10%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의 내용은 많은 중첩을 보이는 데 학술지를 많이 내는 큰 종합대학들에서는 학교내의 학술지들간의 중첩의 형태로 나타나나 전문대와 같이 규모가 작은 대학의 수준에서는 대학간의 학술지들의 중첩의 형태로 나타난다.

## 2. 학술지의 評價體制

평가체제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몇몇 연구지에 대해서 전화 면접을 했다. 여기서 얻은 정보와 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학과 간행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교수들이 기고하는 경우 심사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서로 상대방의 전문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제약되어 있고(특히 한 학과에 같은 문제를 다루는 교수의 수가 1명 정도에 불과한 경우) 서로 어떤 권위를 인정할 용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논문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의 추천 정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만일 편집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에는 그것도 없을 것이다. 학과가 내는 학술지의 기고 논문의 심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기고 논문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발간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원고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고 논문을 엄격히 심사할 형편이 못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단대지의 경우도 같은 두 가지 문제, 서로의 전공을 모른다는 것과 학술지를 발간하는 데 필요한 기고 논문의 부족이 기고 논문의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논문의 외양(길이나 논문양식)에 한정된 심사가 편집 위원들에 의해 행해질 뿐이다.

대학 부설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심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논문의 질에 대한 심사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질은 다른 데서 나오는 학술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연구소는 대개의 경우 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술지를 발간하는

데 고정 연구원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므로 (서울大의 사정에 준한다면) 각 학과 소속 교수들이 연구소가 수행하는 어떤 학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소의 성격에 부합하는 논문을 기고할 때 얻어지는 원고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논문을 심사할 처지가 못되므로 엄밀한 의미의 논문 심사는 없게 마련이다. 다만 학과나 단대의 학술지와는 달리 초청에 의해 기고자를 결정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은 연구소의 성격상 학술지의 내용이 어느 한 학문 분야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적당히 안내하며 또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人選을 통한 일종의 간접적 심사가 된다. 그러나 그런 인선이 반드시 논문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인화관계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가 흔히 고려되기도 하지만 논문이나 프로젝트 수행과는 전혀 관계 없는 고려에서 인선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연구소의 경우 초청 형태의 논문이 대부분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집필자의 심사는 있어도 기고 논문의 심사는 없게 마련이다.

학회지의 경우는 보다 본격적인 논문 심사가 있으나 전국적인 성격을 띤 학회는 대학이 내는 학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 밖에 속한다. 전국적인 성격이 아닌 학회란 앞에서 말한 '연구회'와 비슷한 것으로 특정 학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이런 학회가 내는 학술지는 학과 발행 학술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는 여러 학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히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갖추게 하는 압력이 작용한다. 첫째, 논문들이 모두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므로 우열을 따지기 쉬워지고 둘째, 여러 연구자들이 한 발표 기관에 논문을 기고함으로써 자연히 게재 경쟁이 생기게 된다. 또 편집 위원 선정도 그런 데로 어느 정도의 타당한 기준에 의거하므로 심사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많은 경우 이런 學會誌에서의 논문 발표는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의 교육 성취 정도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일 학문 분

야의 전국 규모 학회에서는 기고 논문의 심사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엄격히 지켜진다. '적어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중의 하나는 기고 논문의 부족) 실제로 논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학회의 경우 기고 논문은 3명 이상의 평가자에게 회부되어 심사를 받는데 그 결과에 따라 편집 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게재 심사 위원의 평가가 편집 위원장에 의해 어떻게 종합되어 최종 평가를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킴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아무리 심사 위원이 엄격히 심사해도 결과의 종합 과정에서 이런 심사의 견을 무시한다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형식적인 심사가 있을 뿐이다. 또 이런 경우에 심사자들의 자격도 하나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실제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아니든 대개의 학술지, 특히 학과에서 발간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학술지들은 모두 편집위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지방 대학의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에서는 모두 4~9명의 편집위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투고 논문의 양식도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서울大 소속 연구소들도 어떤 것은 심사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심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원고들이 대부분 초청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논문 편수를 채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이들 연구소에서 나오는 논문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원고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례비조로 또는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비의 형식으로 원고료가 지불되고 있다. 프로젝트와 관계 없는 논문의 경우는 대개 원고료가 없다. 이것은 연구소의 재원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 규모의 학회의 경우는 원고료를 지불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섞여 있지만 지불하지 않는 쪽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것도 여기에 발표되는 논문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짐작이 되는 것이나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수는 없다.

### 3. 問題點과 改善方案

대학에서 학술 논문이 발표되는 매체로는 학술지 이외에 대학 신문, 각종 뉴스레터, 그리고 학술 발표회용으로 마련되는 발표 논문 요지 초록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술지에 국한해서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다른 매체에서는 본래부터 논문의 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학술지들이 발간되는 상황을 볼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 학술지의 지나친 증부와 이에 따른 학술지의 범람 및 ②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 부재 내지 부적합성이다. 학술지의 범람과 증점은 경비상의 낭비뿐만 아니라 학술 정보를 규합하고 정리하는 데 새로운 문제를 던진다. 현재로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의 논문이 실릴 수 있는 수백 종의 학술지(외국 것은 제외)를 전부 접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연구간에 증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전 연구자의 공헌을 충분히 참작하지 못한 빈약한 연구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런 정보 수집의 난점이 조잡하고 졸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 수가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 서울대 정도의 학생 규모를 가진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나오는 80종 또는 그 이상의 학술지의  $\frac{1}{10}$  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UCLA의 심리학과는 100명에 가까운 專任教授를 가진 美國 有數의 학과이나 학술지 하나도 발간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대체로 다른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혹 어느 학과에서 발간되는 학술 잡지가 있다면 그것은 전국 또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학술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학회에서 나오지 않고 학과에서 나오는 것은 그 학과가 그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연구 활동이 월등히 많거나 특별히 활동력이 강한 연구자가 그 학과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모든 대학의 학과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모든 큰 대학의 학과가 학술지를 내려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日本 대학의 학풍에도 영향을 받은 바 없지 않다. 미국의 학자들은 가능하면 연구 논문은 모두 학회지를 통해 발표하려고 한다. 즉,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학술지의 분화가 촉진된다. 학술지가 분화될수록 연구 논문들은 보다 동질적으로 되고 따라서 평가도 그만큼 쉽게 되고 연구간의 정보의 유통도 활발히 될 수 있다. 논문 원고의 선택 압력이 커지는 것도 또한 발표 논문의 질을 높이게 하는 데 공헌한다.

물론 발표 창구를 一元化하는 데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창구가 단일화될 때 간혹 편집위원의 편견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즉, 일부 편집위원의 취향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나 그들이 용인하는 양식으로 쓰여지지 않은 논문이나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다룬 연구가 배척받을 수 있다. 또 편집자의 좁은 소견 때문에 (특히 편집자나 심사자가 연소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격삭에 사로잡혀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소지는 언제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심사상의 문제가 간간이 거론되곤 해왔다. 발표지가 單一化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다. 지배적인 격삭에는 맞지 않으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연구 논문이 여분으로 존재하는 학술지를 통해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논문의 평가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연구의 질적 향상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 논문의 본격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학술지의 범람과 무관하지 않다. 창구가 많으므로 논문의 선택 압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심사 절차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 것은 명약관화이다. 그럼 왜 학술지들이 중첩되는 내용을 다루면서 난립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선택 압력(즉 심사의 관문)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주도권을 얻으려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학술지를 세력 부식이나 명예 획득의 수단으로 보는 풍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비학문적인 태도는 '만일 네가 학술지를 냈다면 나도 못 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학술지 난립의 또 다른 이유는 돈과 관계가 있다. 이는 연구소의 대학내 난립과도 관계가 있

는 것으로 연구소는 곧 돈의 분배와 관련 있고 연구소나 학과의 학술지에 논문을 낸다는 것은 이 돈의 분배에 참여한다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학회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높은 데 반해 학과나 연구소 또는 단대 학술지에서의 논문 게재는 원고료나 다른 항목의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정적 구실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 분야에서의 권위 체계의 결여를 학술지 난립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겠다. 아직도 현대적인 의미의 학문의 전통이 짧으므로 해서, 또 외국 유학을 주된 학자 양성의 방식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학문 분야내에서의 권위 질서가 생겨나지 않았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남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학술지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학내의 학술 정

보 매체 특히 학술지 발간의 상황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학술지의 학문 분야내에서의 통합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로 그러한 통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학회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이런 방향으로의 통합만이 대규모 종합대학내의 학회지들간의 중첩을 없애고 또 작은 규모의 대학(전문대 등)들이 내는 학술지들간의 중첩을 해소하고 학술정보의 전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세계로 극히 특색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와 중첩됨이 거의 없는 연구를 위한 전문 학술지는 특정 대학에서 계속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經草研究」(忠北大)와 같은 것이다. 끝으로 같은 명칭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소(예: 새마을 연구소)의 학술지는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